

# 한국 재래식 주택에 대한 첫 인상

## My first Impression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Rodney A. Lane



When a westerner first comes to the orient he is of course very impressed with the beautiful temples and palaces of a past culture. In Korea the large beautiful roofs and many colors of these buildings along with their subtle proportions make them very beautiful to the western eye. These comments I am sure you have heard many times. So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alk about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at is the home; The spatial qualities of most all traditional houses either in the large cities or in the small natural villiages I think are basically the same. The major difference seems to be in building materials, quality of construction and size. The unique aspect to the western eye of the traditional house therefor is the use of space and how it differs from the western house.

I came to Korea with my wife about one year ago and we lived as Peace Corps Volunteers in a small myen villiage in Cholla-Namdo. We lived in a small thatched roofed house with a family for about 7 months. Therefor I feel somewhat qualified as a foreigner to speak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In general there was two things that impressed me most. First was the smallness of the rooms, the next was the heating system (since the month was December) the "ondel" floor. This small room with the hot floor is a most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house.

The westerner in Korea usually thinks he needs more room because our houses have many large rooms and we try to spread ourselves out. The Korean ondel room forces people to come

동양을 처음 방문하는 서구인들은 대개가 옛문화의 유적인 사원과 고궁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우리들 서구인의 눈에는 이 고건축물의 아름다운 지붕과 단청(丹靑)은 미묘한 비례를 이루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고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국인은 언제나 듣고 있는 일이므로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고건축물의 다른 하나인 재래식 주택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재래식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은 그것이 대도시에 있던 작은 마을에 있던 간에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 같으며, 차라리 그 차이란 공간적인 것보다 대개가 건축재료나 구조방법 또는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서구인인 필자의 눈에 비친 재래식 주택의 특성이란 주택에서 공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그 공간이 서구식 주택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필자는 평화 봉사단원으로 부인과 함께 약 일년 전에 한국에 나왔으며 전라남도의 한 작은 면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서 약 절 개월간 지붕을 때로 이은 조그만 초가에서 주인 가족과 같이 생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한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재래식 주택에 대해 논의할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나에게 제일 인상 깊었던 일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방 크기가 무척 작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온돌방의 난방 시스템이었다(그 때는 12 월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은 방의 뜨거운 방 바닥은 한국 주택의 가장 독특한 특징의 하나다.

한국에 나와 있는 서구인들은 보통 방의 수가 더

together and I think it is a very good thing. It is similar in this respect to the "fireplace" or "pot-belly" stove of early American hou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del room that of acting as a gathering point for family and friends seems also to be a characteristic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Farming families live together in walk-up houses built very close to each other in natural clusters. From here they go out to the field for the day's work. This forms a real community and community spirit that is not known in western countries or at least America. Our farmers live in separate houses with the land they farm around their house and this acts as a barrier to any kind of community contact with his neighbors. How on friendly when compared to the close commun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village!

This gathering function of the ondel room in case of the individual house and of the village on a large scale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western architecture. To me this is much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an style of construction, building materials, and so forth that we architects usually use to talk about buildings.

In thinking about the large urban centers such as Seoul, Pusan or Taegu now growing at a very fast rate, I think Korea has a very unique opportunit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now facing fantastic urbanization problems and are seeking same kind of direction for orderly growth. If Korea can restate the principles that guided the growth of her natural farming communities to reflect her fast growing economy in the large urban centers, I think she will by-pass many of the problems of haphazard building other cities are facing. This of course is very difficult, but I as a westerner feel that a strong ordering principle that can serve Korean cities does exist in her rural communities if it can only be translated into modern farms.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의 집들은 보통 방이 크고 수가 많다. 그래서 서로 여러 방으로 분리 시켜놓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온돌방은 사람들을 서로 함께 모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필자는 이런 점을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옛날 미국 집의 "Fireplace"나 "Pot-belly"와 비슷한 점이 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모으는 작용을 하는 온돌방의 특성은 또한 한국의 전통적 촌락과도 통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서로 대단히 인접하게 지어진 단층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낮에는 일하러 밭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은 서구의 여러 나라 적어도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참다운 공동사회와 공동체적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농민들은 떨어져 있는 집에서 살며 그들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들 이웃사람과의 어떠한 공동체적인 접촉도 할 수 없는 장애가 된다.

한국의 그 밀접한 공동체적인 촌락을 볼 때 얼마나 다정스럽게 보이는지!

개인 주택에서의 온돌방과 또 큰 규모의 마을이 가진 이런 "모으는"기능은 한국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문제가 우리 건축가들이 보통 건물을 논의할 때 화제가 되는 건축방법이나 건축재료 등의 문제보다 훨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대도시들을 생각할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도시화에서 야기되는 극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어떠한 방향을 찾아 더듬고 있다.

만일 한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대도시의 경제에 한국의 자연적인 농촌의 공동체적 사회를 이룩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러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물의 난문제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서구인인 필자로서 생각하기는 한국 도시에 적용할 강력한 원리는 만일 농촌의 현대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筆者 國立建設研究所 勤務)